



피터의 원리



정보표준과 전기주사 노용수

지루하고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안겨준 여름을 뒤로한 채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 단풍철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자제하여 수해로 힘든 수계민으로 하여금 관광수익이라도 생겨 빨리 복구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금년가을 체육대회엔 관광버스타도 대절하여 강원도로 단풍구경이나 가 봐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각설하고, 그래도 이 가을엔 책 한권 정도는 읽어야 하겠다는 일념하에 마음에 꼭 와 닿는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실 분들은 승진에 한이 맺히셨거나 아예 포기하신 분, 승진은 되었어도 승진전 보다 효율성이 나 신뢰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또 읽고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목은 로렌스 피터가 지은 '피터의 원리'로 서강대 나은영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워만 향해 뛰어가는 현대인들에게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써 대부분의 책이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혹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는데 비해 이 책은 자신의 능력과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멈추기를 권장하는 내용으로서 그래야만 무능력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론인 것이다.

본 논리는 1960년대에 이루어져 쓰여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잘 적용되는 원인은 이 책의 저자인 피터가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를 실질적 경험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조직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은 한두 차례 승진을 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새 지위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또 다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승진은 유능한 단계를 끝내고 무능한 단계로 돌아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뜻을 짚어보면 조직내에서 부하 직원일 때는 곧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승진을 한 후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례는 리더로 승진하지 않았던 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더 좋았



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결국 인간은 조직속에서 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하기 직전에 승진을 멈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는 '엔트로피 법칙'으로 지구 전체가 에너지를 완전히 써버린 '무능력' 상태에서 미래의 생명과 희망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팽창이나 발전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사고, 미래지향적 사고 등이 인간의 추진력을 강조한 앞만 보고 뛰라는 행태라 한다면, 이책이 강조하는 부정적 사고는 잠시 멈추고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이성을 되찾게 한다는 것이다. 빨리 나아갈수록 더 빨리 부정적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속도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자신과 나아가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하여 '위험한 영리함'을 잠시 접어두고 약간의 '건강한 무능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책입니다.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살아온 생활들을 되 짚어보면서 인생의 진리를 새로이 깨달으시지 않으렵니까???

